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 향기

호황의 미술시장이 드리운 그늘



박영택

<미술평론가·경기대학교수>

“

고객들이 원하는 작품을 구해다주거나 잘 팔리는 작가만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 화랑이라고보다는 구멍가게에 해당한다.

”

인사동에서 만난 한 화상에 의하면 지금 미술 시장이 상당히 뜨겁다. 돈이 풀리고 있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미술시장이 호황이라는 말은 거의 들어 보지 못했다. 근자에 들어서 미술경매의 활성화와 인기작가의 그림 값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도 꽤 잘 팔린다고 한다. 화랑들마다 잘 팔리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가 줄을 잇고 그들과 전속계약을 맺는가 하면 외국 의 여러 아트페어에 출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작가는 통화 중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줄 몰랐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해외에서 자신의 작품이 인기리에 팔리자 국내 화랑들이 저마다 전시를 하자고 달려들더라는 얘기가.

90년대 중반에 그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했지만 당시에 화랑들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다.

뜨거운 미술시장

그러다가 외국시장에서 작품이 좀 팔리니까 이제야 황급히 작가를 잡기 위해 부산을 땡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인기 작가들의 작품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한두 달 새에 몇 천만 원씩 오

르는 것 같다.

경매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더욱 조장되는 형편이다. 박수근의 경우가 그 대표적이다. 그의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작은 작품이 수십억 원 씩 찍히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정상적인 시장구조가 아닌 듯하다. 뒤를 이어 이종상, 김환기, 장욱진, 임지순, 이대원 등 측은 이들의 그림이 고가에 팔리고 있다. 살아있는 인기작가의 작품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특히 천경자, 변시지, 김종학, 이우환, 이일종 등의 작가들이 그렇다. 소수의 특정 작가들에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현상을 굳이 탓할 수만은 없는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예술 역시도 상업적 목적과 이윤의 극대화가 절대적 잣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두렵다.

소수의 작가들로부터 돈이 풀리고 있고 미술시장은 그저 잘 팔리는 그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리고 젊은 작가들 역시 시장에서 원하는 기막힌 손의 솜씨에 의존해 극사실적인 기교를 자랑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고안해 이른 특허품 같은 작품들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면 예술의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생가시거나 무의미해 가나 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미술 시장이 호황이고 경매가 활성화

되는 한편 전시가 많아졌지만 우리 미술계의 풍경이 평면적이 되거나 더러 황폐해지고 남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며칠 전 유명작가들의 그림만 전문으로 그려온 사람과 미술 중개인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황폐해지는 미술계 풍경

근래 들어 이 같은 일은 늘어만 간다. 화랑들 역시 알게 모르게 위장들을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된 감정가가 없다보니 위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화랑들이 좋은 작가와 작품들을 엄선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전시를 통해 부여하는 한편 이를 대중,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질이 확보된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우리화랑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작품을 구해다주거나 잘 팔리는 작가만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 화랑이라고보다는 구멍가게에 해당한다. 그러다보니 위작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동시에 미술문화의 흐름이나 진정한 작품의 질과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산업현장 노사화합 기류 바람직하다

최근 임금동결을 선언하거나 사측에 임금 인상폭을 위임하는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노조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임금동결을 선언한 노조들이 과거 격렬한 활동으로 큰 흔적을 치른 곳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일부 대기업 노사화합 기류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위기론' 등으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노조는 5일 올해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GS칼텍스 노사가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포스코 광양제철도 '산업평화 선언식'을 갖고 평화적인 노사문화정착에 나서는가 하면 아사아나항공 노조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사측에 일임했다. 한국바스프 노조와 GS칼텍스 노조는 지난 2004년 각각 9월과 20일간의 파업을 강행하는 등 강성노조로 이름이 높았다.

이런 강성노조들의 변화는 기존의 과격한 노동운동으로는 얻는 것 없이 노사 모두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무분별한 파업투쟁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도 강성노조의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종래 기로에 서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잠깐 빛 전망이 쏠리고 있지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우리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 특히 경직된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없다. 외국 기업이 한국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강성노조를 꼽는 상황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사화합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근로자 권의 향상으로 돌아온다. 산업현장에 일고 있는 노사 상생 기류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기업도 투명한 경영과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더욱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일부 공무원의 근무행태 너무 지나치다

나주시청과 서울시청에서 드러난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행태가 한심스럽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다. 공무원사회가 왜 '철밥통'이나 '무사안일' 등의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있다.

우선 나주시청 한 기능직 공무원의 '땀대' 근무행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공무원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2천500만원의 연봉을 받아왔다고 한다. 상급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면서도 그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의 보복이 두려워 묵인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서울시청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도 이에 못지 않다. 민원전화가 귀찮아 벨소리를 울려놓고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는가 하면 여직원 을 희롱한 사례도 있었다. 민원인과 싸움을 걸고 관련업체 직원을 불러들여 일을 시키기도 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퇴출 당하지 않고 근무해 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국민을 위해 성실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을 떠받치는 못하더라도 불성실하거나 고압적 근무태도를 보여선 공직을 맡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런 공무원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나주시청과 서울시청의 사례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나 다른 자치단체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주시가 공무원의 탈선행위를 묵인한 행위는 관리감독과 감사기능까지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능 및 불성실 공무원 퇴출제도는 보다 확산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때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개미' 있고 맛깔스런 납도의 음식문화는 화를 채록(採錄)한 사람은 송수언이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옛 방식대로 먹는 즐거움을 '솔잡이' 솜씨를 엿다.

시인은 전라도의 온갖 먹거리 중 특히 흥어에 주목했다. '납도의 밤 식탁'이라는 시에서는 '그로테스크한 맛'이라고 썼다가 훗날 '뽕고도 지릿하다'는 표현으로 바꿨다. 그 깊은 '개미'를 표현할 시어(詩語)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가에 젖은 납도의 밤 식탁 / 낯선 거집이 지나는지 동네가 / 경경 짓고 / 그해 함박눈도 쌓였구나 // 그러니 올 때는 / 납도 산천에 눈이 녹고 참꽃 피면 오라 / 불발기 창 아래 너와 결투리 소반상을 들면 / 아 뽕고도 지릿한 흥어의 맛 /-」

김주영도 소설 '흥어'에서 '뽕들을 톡 쏘는 내음과 곡식은 고기맛'이라고 썼다. '대장금' 드라마 중 장금이 맛 본 후 "처음엔 코끝이 찡하고 다음엔 입안이 상쾌하고 끝 맛은 청량하다"고 한 흥어도 며칠 식힌 거였다.

하지만 두업에 목혀 발효시켜 먹는 건 영산강 물목의 식습관이다. 흑산도와 흥도 어민들은 암치 중 고미하지 않은 어린 '플랭이'를 으뜸으로 쳤다.

부드러우면서 '밥 찹' 같은 느낌은 '영계' 흉어에 주목했다. '납도의 밤 식탁'이라는 시에서는 '그로테스크한 맛'이라고 썼다가 훗날 '뽕고도 지릿하다'는 표현으로 바꿨다. 그 깊은 '개미'를 표현할 시어(詩語)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플랭이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으로 4~6월을 흥어 금어기(禁漁期)로 설정했다. 이 기간엔 주낙(延繩)으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플랭이'도 맛볼 수 없게 됐다.

시절조업을 통해 산란철과 자원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전, 포 / 불발기 창 아래 너와 결투리 소반상을 들면 / 아 뽕고도 지릿한 흥어의 맛 /-」 김주영도 소설 '흥어'에서 '뽕들을 톡 쏘는 내음과 곡식은 고기맛'이라고 썼다. '대장금' 드라마 중 장금이 맛 본 후 "처음엔 코끝이 찡하고 다음엔 입안이 상쾌하고 끝 맛은 청량하다"고 한 흥어도 며칠 식힌 거였다.

meonsa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성주



이번 주 초 한·미 FTA 협상만 아니었다면 황사로 인한 피해와 예방 등으로 뉴스가 가득 채워졌을 것인데 더 큰 뉴스 앞에서 황사는 조금 약하게 다루어졌다.

지난 주말 불청객 황사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정신적·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차그마치 날아온 황사의 양이 15t 트럭 5천대 분량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황사로 영남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휴교령을 내리는 등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황사먼지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각종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및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초래할 수

자제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그러나 아무리 황사가 심해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황사로 인한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에 돌아오면 전신을 깨끗한 물로 세척해주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출 후 눈이 따끔거리고 간지러움 증을 느끼게 되면 인공 눈물로 안구를 씻어줘야 한다. 그러나 소금물은 눈을 자극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젊은 여성들은 미용상의 목적으로 인해 콘택트렌즈를 선호하는데 황사로 인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같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외출 후 돌아오면 렌즈를 식염수나

기고

이성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돗물 그대로를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은 약 1.8%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반 성인 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신 해소와 관련한 전 국민여론조사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돗물이 식수에 부적합하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43.9%, '냄새가 나서' 26.3%, '녹물이 나와서' 12.2%, 기타 물맛과 이물질, 잘 못된 보도 등의 이유 17.3%로 나타났다.

매년 수돗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제 지리 걸음인 수돗물의 식수 사용 비중,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깨끗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공급되기

새가 거부할 경우 수돗물을 끓이거나, 혹은 대략 1시간 정도만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셋째 인자는 '관로'이다. 수돗물은 수도관을 이용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노후된 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주로 녹물문제는 각 건물주 관리하에 있는 아파트, 빌딩, 또는 단독주택의 노후된 옥내배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 후된 옥내배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옥내배관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방임해 왔으나, 작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옥내배관의 노후화에 대해 지자체가 감독 및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장래에는 옥내배관의 노후화에 의한 녹물발생 등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수돗물 수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쉽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인자가 있다.

첫째 '상수 원수의 수질'이다. 광주전남의 주요 상수원은 주암호, 동북호로서 원수의 수질은 우리나라 어느 상수원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둘째 '정수처리 된 물'이다. 우리나라는 염소를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 2차 오염가능성의 해결과 살균력, 가격면에서 염소는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인된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잔류염소가 0.2ppm 이상 존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돗물에서 염소냄새(소위 수돗물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염소냄새가 나지 않은 수돗물은 오히려 관로내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다행히 염소는 휘발성이 있으므로, 염소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는 물탱크 관리이다. 맑은 원수를 취수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정수처리를 거친 다해도 부식된 관로와 오염된 물탱크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위에서 기술한 것은 수돗물에 관하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정리해 본 것이지, 실제로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에서도 수돗물이 먹는물수질기준치를 초과한 문제는 없었다. 수돗물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공인된 좋은 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질의 수돗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선대 환경공학부 교수>

전화 금융사기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보지 말아야

어제 청소를 하다 전화를 받으니 다급하게 "은행어신관리팀인데 당신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며 화난 목소리로 다그쳤다. 그날 은행 일을 본 터라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카드가 연체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 중에 담당자 성함을 묻고는 거래은행에 확인하겠다고 하고 끊었다. 그런데 은행에 확인하니 전화 사기라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다행히 그렇지 않았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들여봐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첫

째, 전화감이 아주 멀게 들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둘째, 전화하는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았다. 셋째, 전화 받는 사람의 이름을 모으며 "당신"이라는 말을 썼다. 사실 경황이 없게 만들고는 신용불량이나, 여신관리팀이니, 연체니 하는 말을 들먹거리며 다그쳐도 몰라치면 적잖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공지에 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인지라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절대 속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종학·담양군 수북면

출판업자 장삿속에 독서인구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

며칠 전 어린이용 책을 사러 서점에 들렀다. 위인전, 과학 등 고전 번역서를 비롯해 각종 어린이책 베스트셀러가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텍스트의 여러 번역서가 같이 진열되어 있어 어떤 책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이유는 같은 서양 원본을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해 같은 진열대에 비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인기있는 책은 출판사들이 겹 피자와 크

기를 달리며 서로 다투다시피 하여 출간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읽기 좋게 번역하기보다는 광고나 겉표지, 디자인이 좋으면 오히려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다.

저작권 시효가 끝나거나 이미 끝난 동서양 고전의 경우는 무려 수십가지가 넘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구해 주기란 무척 힘들었다.

출판업자들의 장삿속이 독서인구만 줄여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